

박용만(@Solarplant)
“두 분이 그룹사운드 만드세요. 이름은 배신s”
제 친구는 LG 응원합니다. 근데 전 LG 다니고, 제 친구 두산 다닙니다’란 멘션에 대한 답변)

두산인프라코어 박용만 회장(@Solarplant)
“두 분이 그룹사운드 만드세요. 그룹 이름은 the 배신s.”(저는 두산(야구) 응원하고,



트위터는 어렵지 않다. 콘셉트를 정하고 초기 팔로어를 확보하면 일단 준비는 끝. 기사로 소개한 7가지 원칙만 지킬 수 있다면 '파워 트위터러'가 되는 건 시간 문제일 뿐이다.

눈에 똑똑 간결한 아이디...팔로잉이 저절로~

기억하기 쉬운 아이디로 먼저 접근
프로필에 관심사 구체적으로 기재
팔로어 숫자보다 통하는 맛팔 권장

이왕 시작한 트위터, 남들처럼 잘 해보고 싶지만 현실은 의외로 만만치 않다. 어쩐지 대세에 뒤떨어지는 것 같아 물어 물어 가입은 했지만, 막상 어찌할 줄을 몰라 하루도 안 돼 트위터를 접어버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래서 준비했다.

스포츠동아 '파워 트위터러' 양형모 기자가 추천하는 다음 7가지 항목은 '트위터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것만 지켜도 어디 가서 "트위터 좀 합니다"고 큰소리 칠 수 있을 것이다.

1 미리 콘셉트를 정하자

처음 트위터를 시작할 때 콘셉트를 정해 놓으면 여러 모로 좋다. 자신이 가장 잘 알고, 관심이 있는 분야를 콘셉트로 잡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야구광이고 삼성 라이온즈와 류현진의 열혈 팬이라면 '야구', '삼성 라이온즈', '류현진'이 콘셉트가 될 것이다.

콘셉트를 정해놓으면 앞으로 트위터 멘션을 올릴 때마다 '어떤 글을 올려야 하나' 고민할 필요가 없다. 야구와 삼성 라이온즈, 류현진에 관한 한 하루 종일 떠돌아다니는 시간이 부족한 당신에게 트위터는 훌륭한 소통의 창구가 되어줄 것이다.

2 아이디는 간결하게, 프로필은 자세하게

트위터 계정 아이디는 되도록 간결하게, 프로필은 자세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다. 간결한 아이디는 사람들이 기억하기 쉽게 해주며, 다른 사람이 당신의 글을 RT할 경우 추가 글을 쓸 공간이 쉽게 확보된다. 자신의 이름을 그대로 아이디화하거나(창의력이 없어 보인다) 'dhkfgoeldk'와 같은 외계어 아이디는 피하자.

이름 알릴도 기자 위치 서울 광화문 웹 http://www.journa... 자기소개 스포츠동아 유일의 공연 담당기자. 인터뷰보단 차라리 수다를 일지! 바깥보다는 안에서. 판파다는 '계'에서 불고있다. 뮤지컬, 클래식, 재즈, 블루스, 국악, 연극, 전서, 오페라, 바둑, 술, 야식, 음악 사진.

7.861 10.087 490 팔로워 팔로워 리스트

- 헬시 검색으로 @kdr0112 님을 follow 하였습니다.
- 이명박 검색으로 @mb2c8nm 님을 follow 하였습니다.
- 기자 검색으로 @Kim_ju 님을 follow 하였습니다.
- 윈도우 검색으로 @windows350 님을 follow 하였습니다.
- 오리 검색으로 @tigersam1001 님을 follow 하였습니다.
- 코드 검색으로 @codeofheaven 님을 follow 하였습니다.
- 경영 검색으로 @yoyotouch 님을 follow 하였습니다.
- 부동산 검색으로 @landjob 님을 follow 하였습니다.

@ranbi361/ent

ranbi361

@ranbi361/biz

ranbi361

프로필은 자세하게! 종잡돈을 마련하자!

팔로어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는 가급적 프로필을 자세하게 적는 것이 좋다. (원 왼쪽) 관심분야가 비슷한 팔로어 검색을 위해 '트윗 애드온즈'(가운데)와 같은 도우미 사이트를 활용하는 것도 추천하며, '트윗덱'은 PC에서 리스트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

팔로어들이 당신의 계정을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심사 목록을 최대한 상세히 프로필에 기입하는 것을 권한다.

3 종잡돈을 마련하자

자, 계정을 만들었다. 의욕적으로 글을 몇 개 올려보지만 아무 반응이 없다. 당연하다. 당신의 팔로어는 현재 0명이니깐. 즉, 당신의 글을 볼 수 있는 사람이 0명이란 얘기이다. 이래선 사막 한 가운데에서 혼자 연설을 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

사업을 하려면 '종잡돈'이 반드시 필요한 법. 트위터에서 '종잡돈'이란 초기 팔로어를 의미한다. 트위터를 시작했으면 부지런히 다른 사람을 팔로잉해 자신의 팔로어를 늘리자. '종잡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일단 100명 정도면 충분하다.

이왕 '종잡돈' 팔로어를 확보할 바에는 '양' 못지않게 '질'도 중요하다. 가급적 자신의 콘셉트, 관심사와 관련이 있는 팔로어를 끌어모으도록 해보자.

4 팔로어가 많으면 무조건 좋다? No!

트위터 관련 사이트 중에는 '맛팔율'이란 것을 제공하는 곳이 있다. 서로가 팔로를 하는 '맛팔'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으로, 당연히 맛팔율이 높은 사람을 팔로하면 이쪽을 맛팔해줄 가능성이 높다.

팔로어 수를 빠른 시간 안에 늘리기 위해 이런 사이트에서 '맛팔율 100%'만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을 팔로하면 100% 이쪽을 팔로해오므로 팔로어 수를 급격히 늘릴 수 있다. 트위터 규정상 1시간에 100명까지 팔로할 수 있으므로, 이 기능을 최대한 이용하면 이론상 하루 2400명의 팔로어를 만들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팔로어 수를 늘리는 것은 권하고 싶지 않다. 당신의 목적과 상대방의 목적은 대략 일치한다. 멘션보다는 맛팔에 관심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늘린 팔로어는 당신의 멘션에 아무 관심이 없다. 역시 당신의 멘션은 '사막의 나 홀로 연설'이 될 가능성이 크다.

5 리스트 관리의 필수

팔로어 수가 수백명을 넘어가게 되면 더 이상 타임라인을 보기 힘들어진다. 잠깐만 눈을 떠도 수십여개의 멘션이 주르륵 올라오기 때문이다. 자신이 정작 보고 싶은 사람의 글이 순식간에 멘션더미에 묻혀 버리게 된다. 그래서 리스트 관리의 필수이다. 자신의 관심사에 따라 '친구', '회사', '연예인', '야구', '축구' 등 리스트 항목을 만들어 놓고, 팔로어들을 해당 항목에 집어넣으면 된다.

만약 개그맨 남희석의 글이 보고 싶다면

남희석을 '연예인' 리스트에 넣어두면 끝. 이후 '연예인' 항목을 보면 남희석의 멘션을 놓치지 않고 볼 수 있을 것이다.

6 당원이 되라

트위터에 여러가지 '당'이 있다. 같은 취미,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끼리 트위터상에 만든 온라인 모임이다. 온라인 모임이지만 오프라인 번개 등을 통해 친목을 다지기도 한다. 당연히 팔로어 수를 늘리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7 도우미 사이트를 활용하라

트위터 라이프를 위한 도우미 사이트들이 있어 소개한다. 이들 사이트를 잘 이용하면 트위터를 하는 재미가 배가된다. ·트윗애드온즈(www.twtadddns.com): '팔로 매니저'를 통해 '나의 팔로어 중 내가 팔로하지 않은 사람', '내가 팔로했지만 나를 팔로하지 않은 사람'을 확인할 수 있다. '맛팔율 계산기'로 '맛팔율'도 볼 수 있다. ·트윗얌(tweetyam.com): 내 트위터의 금전적 패턴과 각종 통계를 제공한다. ·슬리핑타임(sleepingtime.org): 트위터로 분석한 나의 수면시간.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트위터@ranbi361



남편을 따라 한국과 두바이를 오가는 서영은은 스스로 '두바이 백조'라 부른다. 그 일상의 재치가 발휘하는 힘은 크다. SNS의 힘, 역시 소소한 일상에서부터 시작된다. 스포츠동아DB

인간적인 대화·'맛팔' 이벤트 서영은 트위터에 빠질 수밖에...

가수 서영은은 트위터(@m2pooh)에서도 스타이다. 1만명이 다소 넘는 팔로어 수는 인기 아이돌 스타에 비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문제는 '양'이 아니라 '질'이다. 서영은은 그 누구보다 트위터를 잘 활용하고, 스스로 즐기고 있다. 재치 넘치는 서영은의 멘션을 보고 있으면 개그맨 남희석, 박지선의 트위터보다 부족할 게 없을 정도로 재미가 있다.

엔지니어 남편을 따라 두바이로 간 서영은은 한국과 두바이를 오가며 활동하고 있다. 아이들이 득세한 가요계를 바라보며 '가수 생활을 접어야 하나' 고민하던 서영은은 지난해 발라드 '이 거지같은 말'로 음원 사이트를 휩쓸며 화려하게 컴백했다. 서영은의 트위터가 팬들의 눈에 '쏙' 들어온 것도 이 즈음이다. 서영은은 트위터를 통해 자신의 소소한 일상을 일기처럼 풀어놓았고, 자연스럽게 신곡도 홍보할 수 있었다.

현재 두바이에 머물고 있는 서영은은 여전히 트위터로 팬들과 소통하고 있다. 가수들은 대부분 활동을 하지 않을 때면 베일 속으로 사라져버리지만 서영은은 다르다. 팬들은 트위터를 통해 평범한 주부로 살고 있는 서영은의 일상을 속속들이 들여다볼 수 있다. 서영은 트위터에는 과연 어떤 특별한 것이 있는 것일까.

●재치&감성으로 다가가기

대표적인 발라드 가수답게 때로는 감성적으로, 때로는 개그우먼을 방불케 하는 웃음으로 팬들과 소통한다. 작사가이기도 한 서영은의 멘션은 매우 감각적이다. 무대에서 볼 수 없는 서영은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점이 강점이다. 자신이 써붙인 트위터 부제 '두바이 백조의 괴로생활'이란 글만 봐도 그녀의 유머감각을 느낄 수 있다.

●서영은표 맛팔 이벤트

서영은은 팬들과의 맛팔에도 적극적이다. 수십만명의 팔로어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정작 자신은 두 자릿수 팔로를 하고 있는 일부 스타들과는 확실히 다르다. 현재 그녀가 팔로하고 있는 사람은 967명. 자신의 팔로가 10명 중 대략 1명과 맛팔 관계를 맺고 있다는 얘기이다.

재미있는 점은 '서영은표 맛팔 이벤트'. 자신이 출연하는 방송 프로그램 시간을 예고하고, 일명 '본방사수(재방송이 아닌 본방송 시청 또는 시청하기)' 인증샷을 올린 사람을 맛팔하는 이벤트로 독특한 효과를 봤다.

양형모 기자